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2012.12월 정기회 회의록

2012. 12

행정국
(총무과)

작성자

과명: 총무과

담당: 송은숙
(☎2133-5663)

팀장: 김혁
(☎2133-5629)

과장: 오형철
(☎2133-5605)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2012.12월 정기회 회의록

일 시 : 2012. 12. 21(금) 14:00~15:20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참석인원 : 위원 7명 (김숙경·박신의·강희영·이원재·이강무·
이형석·이창학 위원)

- 배석 : 5명(총무과장, 역사도심관리과 도시관리팀장,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운영팀장,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
팀장,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심의안건 및 의결결과

- 2013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안) : 원안의결
- 2013년 서울광장 운영계획 : 원안의결
- 2013년 광화문광장 운영계획 : 원안의결
- 2013년 청계광장 운영계획 : 원안의결

보고안건

- 서울광장 에너지제로하우스 전시계획 보고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변경 보고

〈 주요 발언내용 〉

○ 심의안건 1 - 2013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안)

- ○ ○ ○ 위원

지난 번 조례 만들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취지는 공휴일 등에 정해진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순서대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해도 국경일이나 정해진 행사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안전장치를 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30일' 조항을 넣었던 것은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신고제와 충돌하니까 3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날이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준비가 필요한 행사를 제외한 행사는 기존 신고제 방식으로 받고 되도록 미리 정하지 않는 것.' 이런 정도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였습니다.

- ○ ○ ○ 위원

여기서 탈락된다 해서 이 분들이 광장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30일 범위 내에서 우선적 사용권을 갖느냐, 못갖느냐 하는 결정만 하는 것입니다.

- 총 무 과 장

본 위원회에서 수리 대상으로 결정이 안 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90일 전에 사용신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 ○ 위원

심사 기준안과 검토 의견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 ○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2013년도에 30일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단체와 행사만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준과 순위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화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안건 2 - 2013년 서울광장 운영계획
- 심의안건 3 - 2013년 광화문광장 운영계획
- 심의안건 4 - 2013년 청계광장 운영계획

- ○ ○ ○ 위원

청계광장은 다른 광장에 비해서, 전시행사를 유치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광장과 다른 운영 방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장은 주로 신고를 받거나 프로그램들이 오면 원활하게 잘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기획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건지요?

- 청계천관리처 운영팀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것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공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혼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공원인데, 젊은 남녀가 프로포즈 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확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니면 약간 어려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별 이벤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 ○ ○ ○ 위원

광화문 같은 경우는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보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소성, 역사성을 복원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조거리라고 해서 거기에 장소성이나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통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광화문 광장은 대표성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에서 이미 그 장소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동선만으로 가능해서, '아예 행사의 전체 일수를 제한을 해버리는 것은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청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감내를 하고 있거나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기준에 대해 광장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청계천관리처 운영팀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 ○ ○ ○ 위원

그리고 보니까 서울광장이랑 청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무단 사용하는 게 있는데, 광화문 광장은 유독 없더라고요. 무단 사용 건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경찰 병력을 계속 상주 시켜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 도심관리팀장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집회성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집회법에 의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도 협의를 하는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 ○ ○ 위원

저가 몇 개 의견을 드리면요, 일단 3개 광장이 있는데 청계광장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광장으로 운영한다면 광장에 맞는 운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광장이 아니고 청계천과 관련된 공간으로만 본다면 뭔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집회를 못하느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 도심관리팀장

맞습니다.

- ○ ○ ○ 위원

최근에 광장 이용 패턴이 시민은 서울광장으로 가고 광화문 광장은 집회 자체가 안 되는데, 청계천 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도농상생 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 소통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장소성을 잘 하는 게 광장이용에도 좋고, 광장 운영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도시농업이나 도동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다른 광장들도 유니온 스퀘어나 도시농업 마켓을 하잖아요.

- 청계천관리처 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 ○ ○ ○ 위원

장소마케팅에 대해서는 지금 되고 있는 것들에 플러스해서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점점 날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마케팅 경쟁이 붙으면서, 그래서 광장 측면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 ○ ○ 위원

하나 더 붙이면 진짜 어느 날은 가보면 청계 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셋 다 농수산물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도 문제지만 이게 광장 간에 이렇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본래의 광장별로의 특성, 개성, 그리고 특징이 없어지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이나 흥미를 잃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 ○ ○ 위원

더 의견 없으시면, 나왔던 의견들이 '소음 기준을 차등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역사성 과연 어떤 역사성을 말하는지에 대해 공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온 얘기가 '3개 광장이 각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광장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 1 - 서울광장에너지 제로하우스 전시계획 보고

- ○ ○ ○ 위원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뀌면 내부의 부분도 다 연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설계를 자유롭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 ○ 위원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본래 목적인 바대로 에너지 제로가 되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안건 2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설치·운영 변경 보고

- ○ ○ ○ 위원

당초 계획보다 부대시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더 증가된 요인이 뭘니까?

- 체육진흥팀장

부대시설 중에서 특히 늘어난 것은 어린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을 대폭 증가시킨 것입니다.

- ○ ○ ○ 위원

총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링크장이나 동선, 이런 것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잘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 ○ ○ ○ 위원

혹시 '대기 기준은 어느 정도 이고, 기준을 넘을 때는 환불해 드립니다. 퇴거조치 합니다.'라는 규정을 정하셨습니까?

- 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대표하신 분들은 대기 기준을 초과했을 때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신속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환불기준은 만약에 이미 표를 사신분이 중단이 돼서 이용을 못하신 경우에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환불해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차후에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 외에 의견을 드리자면,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잔디관리 같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기를 ‘너무 양탄자처럼 관리를 하니까 시민들께서 잔디광장을 이용하기에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셔서 좀 더 조방적인 상태로 관리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가 실제로 그렇게 길러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에 맞는 잔디를 어떻게 잔디포에서 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보식을 할 때 어찌할 건지 세심하게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잔디상태가 많이 나쁩니다. 보식을 해야 되는데, 맨땅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조방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잔디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방치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논의를 하고 다음에 한번 내년 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농 교류 부분에서 ‘이게 뭔가 대표성이 있는지 불분명한 단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과제로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논의를 하고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 위원

잔디에 관해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잔디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아이들이 손잡기도 하고 그런데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지, 그것도 중간 중간에 농약이나 납이나 여러 가지들이 성분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기오염 관련해서 체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2012년 12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